

전 남

압해대교 '엉뚱 가로등' 눈살

지난 8월 태풍 훼손 이후 방치... 도로 반대편 비취

목포시·신안군 "예산 없어 보수 늦어졌다" 변명만

목포와 신안군 압해읍을 잇는 '압해 연륙교'에 설치된 가로등이 지난 8월 태풍에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하다.

25일 신안군민 등에 따르면 압해대교에 설치된 가로등은 지난 8월말 및 다른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도로가 아닌 엉뚱한 곳을 조명하고 있거나, 가우스(등갓)가 떨어져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압해대교는 총 사업비 209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0년 6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한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 연장 3563m(교량부 1420m)의 넓센 아치형의 해상교량이다.

이 연륙교에는 418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아치를 기준으로 목포시에서 167개, 신안군에서 251개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목포시 관리구간 가로등 가우스 전

체가 도로가 아닌 도로 반대 방향을 향해 조명하고 있는 등 전체 가로등의 3분의 1에 대한 보수가 절실하다.

주민 양모(목포시 북항동)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대교가 지자체들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시설기능을 상실하거나, 경관을 훼손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포시와 신안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늦으나마 예산을 확보해 보수공사 발주를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보수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시도 "시급하게 일부 구간을 임시 보수하고,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태풍 영향으로 훼손된 압해대교 가로등이 도로가 아닌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여수시 예산 503억 절감

여수시가 박람회 치르는 가운데 도 올 한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사회 간접자본(SOC)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 확장공사비 210억원과 석창교차로 개선 공사비 170억원 등 시비로 지출해야 할 공사비 380억원을 극비로 대체하는 등 올해 한해 총 503억 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올렸다.

또한 510억원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을 이월이 낮은 쪽으로 변경해 46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각기 흩어져 있는 각종 기금들을 모두 가 125억원의 통합기금을 조성, 조차 상환함으로써 26억원의 이자를 아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까지 총 475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 등에 대해 원가 계산서 등 계약심사를 펼쳐, 이 가운데 잘못 산정된 물량 내역서 등을 바로 잡아 51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기금 조성과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예산 절감 사례는 다음달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2012년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시 소유의 여수산단 적량지구 공장건설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전환, 당초 예상했던 매각 대금보다 212억 원의 더 바나내 결과적으로 212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여수=임문택기자 mtim@



전남농산물 로컬푸드 판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광주시 수원지구에 위치한 농협 광주유통센터내 전남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가을걷이 전남농협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장터에서는 김장재료인 배추·고추·양파·마늘과 대봉 홍시와 호박고구마 등을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맞춤형 제설대책' 세웠다

구간별 대책팀 구성 운영...인력·장비 등 확보 만전

전남도는 폭설에 따른 교통 두절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내 도로 제설대책계획을 수립,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설대책이 필요한 국도와 지방도 등 79개 노선 161개소, 301km 구간을 도로 관리청별로 제설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노선은 기상특보와 적설량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 등 상황관리 근무체계가 단계별로 유지된다.

폭설 때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사전에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한 국도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곳과 상습 결빙구간은 순찰을 강화하고 폭설 예보 때는 제설자재를 사전 살포하는 등 도로와 기상 조건에 따라 맞춤형 제설작업을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제설 인력 2132명, 제설

장비 664대,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1만5255t을 확보했다. 또 고갯길이나 급경사 구간 등에는 9000m의 모래 적치를 마쳤다.

연말까지 1200t 이상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도로 시설물과 차량 부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강알칼리성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고 소금을 섞어서 습식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지역 한 영농법인에서 해외로 수출할 파프리카를 선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농·특산물 수출 500만달러 육박

파프리카·수국·막걸리 등 7개 품목

강진군 지역 농·특산물 수출액이 500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파프리카를 비롯해 수국, 막걸리, 미역, 김 등 7개 품목 농·특산물 해외수출이 활발하며 11월 현재 400만 달러(한화 43억3000만원)를 넘어섰다.

특히 일본은 원산지 발생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한국 농산물을 찾는 일본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병영 주조장의 막걸리는 지난 2008

년부터 매년 200t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억원 이상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출적합 기준 관청도 받아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파프리카는 지난 8월말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 출하가 되면 바로 일본으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일본수출을 통해 신뢰가 두터워졌고, 무엇보다 첨단 원예시설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산 파프리카는 올 한해 500억 원의 일본으로 수출해 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진원 군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집하장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이뤄져 지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며 "오는 2014년에 농산물유통 전문회사(APC)가 건립되면 농산물의 집하, 선별, 출하, 공동 정산 등 전문화·규모화로 지역 농산물의 산지유통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문향장성' 키워갈 교육발전계획 제시

장성교육청, 교육감·학부모 등 250여명 참석 설명회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중욱)은 최근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장만체 교육감과 기관단체장, 관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교육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배우며 미래를 일하는 문향인 육성'이라는 교육발전의 실현하기 위한 장성교육 발전계획이 제시됐다.

장성교육 발전계획에는 ▲문향장성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안전망 구축·

운영 ▲문향의 전통 계승 발전 ▲장성교육의 교육력 제고 ▲장성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운영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다.

김중욱 교육장은 "장성교육 발전 계획 주요 내용들을 각종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교육공공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정립해 나가겠다"면서 장성교육 공동체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고흥 유자차 수출기업 한성푸드 방문

aT 김재수 사장, 수출 지원대책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재수 사장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근 고흥지역을 방문해 수출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유자차 수출기업인 고흥 한성푸드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고흥군은 유자의 최대 생산지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다. 전남지역의 10월 말 현재 유자차 수출실적은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가는 일본, 중국, 홍콩 등이다.

김재수 사장은 "aT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해외마케팅 강화, 전략품목 집중관리, 수출현장 및 착지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옌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www.indara.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러면 별로 피곤하지 않은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이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부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안정피로'라고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이 울퉁불퉁해지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끄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안의학과장 김경삼원장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20106-중-9820호(광교)